

[그말씀 설교 6]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라

[본문] 요 10:7~15 / 김선도 목사 / 페이지 수: 5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 10).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수도원에 있는 기도공원에 와서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번에 그곳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조형물을 만들어 세우기로 했는데 수도원의 상징적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잃어버린 어린양을 구원해내 선한 목자 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유대나라는 목자의 나라라고 할 만큼 목축업을 주로 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통해 축복을 받았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 장수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삷군목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기름진 꿀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삷군 목자는 양들을 책임지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양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중에는 쇠진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말씀 속에는 네 가지의 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양이 그 목자만 따라가기만 하면 풍성한 꿀을 먹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삷군 목자는 이리 떼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서 양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양은 유순하고 평화로운 동물입니다. 양은 남을 해치는 예기한 이빨이나 뿔이 없습니다. 양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양은 또 고집이 세 제멋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결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특히 유대 나라는 풀이 무성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다녀야 제대로 풀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제멋대로 살려합니다. 사람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선한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마9:37)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

부터 지금까지 지도자는 언제나 기에 싸여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생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친인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의 스승이 될 만한분이 누구인가 찾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마음 놓고 위탁하고 따를 수 있는 참 목자가 누구입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은 나를 보종시킬 만한 인도자를 찾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청소년들이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빈번한데 원인은 록 뮤직을 크게 틀어 놓고 운전을 하다가 카세트테이프를 갈아 끼우는 순간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예기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목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한 세대를 변화시킨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킬 만 훌륭한 지도력이 있었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 있었다. 마틴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는 개혁자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 말하면서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올바른 것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인격을 보여주시고,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몇 갑절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저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니라"(고후5:19)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 된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우리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상영된 '장미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생긴 한 숙녀가 골동품을 경매하는 임시 경매장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교제를 하다가 마침내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궁궐과 같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 저명인사도 되었고, 자녀는 하버드 대학에 다닙니다.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상한 짜증이 나서 남편을 난폭하게 깨웁니다. 피차에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부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이 아끼는 개를 굶겨 죽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그들은 남편 구역과 아내 구역을 설정해 놓고 공동 구역도 설정해 놓았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맹렬한 미움과 증오와 저주 속에서 지내는 동안 그 미움 때문에 결국 둘 다 죽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그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회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가 필요한데 이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미움과 갈등 속에서 지내던 부부가 가정의 달 설교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 용서하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중보자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짓 목자, 삿군 목자는 맹수가 오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양떼를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의 전대에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서 아리 떼가 오면 물매 돌을 가지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지팡이를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있는 양을 구출해 냅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예수님, 그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구원자가 되신 것을 말합니다. 죄로 타락한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소경과 같이 지내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소경과 같습니다. 바른 판단력이 없습니다. 영생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가치의 세계,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선한 목자 구세주를 따라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어리석어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혼자 밭에 들어갔다 가시에 찔리면 꼼짝하지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때 선한 목자가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는 양을 구원해냅니다. 바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신양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려고 하십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은혜인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천만분의 일만큼이라도 닮은꼴이 있을 때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화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나를 이루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어를 지배하는 생활, 이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진지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지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양희찬이라는 군종 병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의 장기를 기증해서 다섯 사람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청년은 모범적인 사병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가정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능 웃으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때로는 범죄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고 단호히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이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부대의 행사준비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내 아들의 생명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24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건강한 장기들을 바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섯 사람의 생명을 되살아나게 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많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을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갈 때에 더욱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에 한 프랑스 사병이 전선에 나가 적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야전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때마침 마취약이 다 떨어져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총탄을 가슴에서 빼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병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뎠습니다. 마취내 군의관이 가슴 깊숙이 박힌 총탄을 꺼내어 그 사병에게 보여주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군의원님, 만일 당신이 나의 가슴을 좀 더 깊이 갈랐더라면 당신은 그 속에서 황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슴 속에 황제를 모시고 살았고 황제 때문에 전투장에 나가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황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황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의 길을 따라가는 우

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보다 가치 있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
자 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더욱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
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선도 목사 / 광림교회 담임목사>

* 출처 : 그말씀